

점차 포화상태에 이른 전집시장, 그리고 출판사마다 옛이야기라면 없는 출판사가 없을 정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옛이야기 그림책. 하지만 《몬테소리 옛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은 오히려 우리 옛이야기의 진가를 확인시켜 주는 과정이었다. 편집자들 스스로 옛이야기 속에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어느 편집자의 말처럼 '옛이야기는 바로 꿈과 희망의 문학'이었던 것. 이제 1차 출간을 하고, 9월 2차 출간을 준비하면서 옛이야기를 완성하는 동안 갖게 된 새로운 희망을 담고자 한다.

●
 지금을 어린이책의 전성기라고 부른다면 무리한 표현일까? 어린이책만을 전문으로 펴내는 출판사들이 낫설지 않고, 심지어 인문, 사회 서적을 주로 펴내던 성인물 출판사들도 어린이책을 펴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이책은 언제부터 있었을까? 지금이야 서점에서 엄마 옆에 쫓그리고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고르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어린이들이 문화의 중심으로 더군다나 문학의 중심으로 자리를 찾은 것은 얼마되지 않은 일이다. 서점에서 어린이책을 찾아보기 어렵던 시절, 어린이책은 주로 집집마다 방문하여 책을 판매하는 방문판매 사원들을 통해 구입할 수 있

었다. 그래서 방문판매되고 있는 전집은 아직까지도 부모들이 아이 책을 고르는 기준이 되고 있고, 전집 출판사들은 이런 부모들의 요구를 담아 맞춤형 전집을 만들기 위해 이르고 있다.

전집은 옛이야기나 과학 등 어린이책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담아내기엔 적절한 형식이다. 한 영역의 이야기들을 다양한 주제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단행본 출판사들도 옛이야기 그림책을 전집과 비슷한 '시리즈 형식'으로 기획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전집은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있다. 수십 권, 많게는 백 권 가까이 되는 책은 독자들에게 부담이 되기에 다양한 시리즈물을 기획하고 있는 단행본 출판사들과는 차별점을 가져야 한다. 국내 전집시장을 주도해 온 한국몬테소리는 전집시장을 새롭게 개척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에 《몬테소리 옛이야기》는 전집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시험대와의 같은 작업이었다.

●
 《몬테소리 옛이야기》를 기획하면서 가장 먼저 벽에 부딪힌 것은 오래전부터 출판사들의 단골 메뉴가 된 옛이야기를 어떻게 새롭게 발굴해 내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미 나와 있는 것과 다른 점, 우리 전집만의 특

글 | 김영란(한국몬테소리 편집부)

별한 점을 찾는 것. 전집기획자나 편집자들이 기획단계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것도 아마 이런 점일 것이다.

옛이야기 그림책은 이미 거의 모든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독자들에게도 이미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몬테소리 옛이야기》만의 색깔을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먼저 다른 편집자들과 함께 이미 출간된 옛이야기 그림책과 〈구비문학대계〉 〈한국구전설화〉 등 신화를 비롯한 옛이야기를 채록해 놓은 자료들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도서관을 뒤지며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놀랐던 점은 많은 옛이야기 그림책 속 이야기들이 상당 부분 잘리거나 왜곡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너무 잔인해서 아이들한테는 맞지 않으니까, 자꾸 반복돼서 지루하니까, 앞부분은 괜찮은데 뒷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니까... 물론 모두 편집자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또 편집자나 작가의 해석에 의해 원래의 이야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이야기들도 많았다. "아, 도대체 옛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우리는 원래의 우리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을 찾아 주기로 했다. 옛이야기 속에는 많은 의미와 상징이 있다. 힘든

어린이 전집을 만든다는 것은 2 • 전집



노동과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며 빠져들었던 상상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숨어 있고, 그 속에 바로 우리 조상들이 감춰 놓은 힘이 있다고 믿었다.

우리 옛 조상들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 주기 위해 《몬테소리 옛이야기》의 그림은 디테일한 묘사를 살리고, 자료들을 철저히 검증하는 과정을 가졌다. “이렇게 만들다가는 전집 30권 언제 다 만들어요?”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세밀하네요.” 기존의 옛이야기 그림책 방식에 익숙한 화가들이 가장 어려워했다. 옛이야기 그림책이라면 눈감고도 그린다는 이순耳順의 나이를 넘기신 원로 화가에게 수정을 의뢰할 때는 나름대로의 어려움도 많았다.

《몬테소리 옛이야기》를 진행하면서 편집자들도 화가들에게 놀란 점이 있었는데, 바로 전집을 기피하는 화가의 태도였다. 그림을 부탁하려고 지방까지 몇 번씩 내려가 삼고초려를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올라와야 했을 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단행본 그림은 아무리 화료가 적어도 ‘내 작품’이지만 전집은 한 권 한 권 정성을 쏟지 않는 작품이 없건만 다른 작품에 묻혀 자기 작품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화가들도 있었다. 정작 책을 읽는 아이들

은 단행본, 전집을 구별해서 읽지는 않을 텐데 말이다. 하지만 여기에 무조건 화가들을 탓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 안다. 작가와 화가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작품을 할 수 있는 창작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출판현실 때문이리라.



화가들과의 작업과정도 어려운 과정이지만, 오디오 음반을 만드는 과정은 출판 이외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일을 한다는 점에서 신선하고도 어려운 작업이다. 《몬테소리 옛이야기》에서는 옛이야기의 분위기에 맞게 배경음악을 국악으로 하고, 우리 전통악기와 사물들을 이용해 효과음을 내면서 아이들이 우리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아이들이 국악을 어려워하고,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어른들의 선입견이다. 아이들은 리드미컬한 우리 장단과 독특한 이미지를 가진 우리 악기에 강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판소리의 한 대목을 차용해 장면을 구성하기도 했는데, 그림책 오디오 작업을 해 본 성우들과 작업한 엔지니어들 모두 이런 작업방식을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곧 작업에 빠져들게 되었다. 국악을 아이들에게 맞

게 적용하는 작업이 많이 시도되길 바란다. 사람들이 흔히 전집에 있는 몇 십 권의 많은 책 중에는 대충대충 만든 책도 몇 권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편집자가 신도 아니고, 그 많은 책들을 고루 신경써서 만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묻고 싶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냐고. 작업을 하면서 애를 먹은 작품일수록 더욱 애정이 간다. 자식을 많이 낳아 본 것은 아니지만 서른 권이 출간될 때는 서른 명의 자식을 낳는 심정이다. 어느 것 하나 독자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몬테소리 옛이야기》의 한 권 한 권 속에 숨어 있는 지혜와 희망을 독자들이 찾아내길 바란다. **출판**

